

주제 「심미적 치과의학」



- 부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치의학」
- 제 1 부회장에 池憲澤박사(치협 고문)被選
- 수석대표 梁精康국제이사, 아태준위 姜孝植위원장 참석



〈아태회의 석상에서의 梁수석대표와 姜孝植위원장〉

수석대표 梁精康국제이사, 교체수석대표 明魯哲공보이사, 아태준위 姜孝植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바 있는 제13차 아태지역 치과회의에 참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지난 5일 무사히 귀국했다.

동 회의는 1월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된바 있거니와 16개 회원국중에서 12개 회원국에서 150명정도가 참가 국제대회 규모로는 좀 빈약한편이었다는 평이다. 오는 89년 제14차 회의론 한국에서 주최한다는 점에서 참가회원의 관심은 예년회의에 비해 큰 의미가 부여된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라탄·H·닥터(인) ▲부회장: 池憲澤(韓), 나더아(比), 쟁(홍콩), 쓰루마끼(日) 이상 4명 ▲사무총장: 레베티기(싱·유입) ▲FDI과전 대의원: 윌리암윙(홍콩) ▲뉴스레터 편집인: 라트니산(말)

이번 대회는 또 APDF의 기존의 2개위원회(공중구강보건위원회, 치과교육·민허위원회) 외에 구강진환위원회를 신설했으며 회원국의 회비도 10% 인상했다. 한편 2월 1일 거행된 폐회식에서는故 이유경씨와 이영옥씨가 APDF 명예회원(Honor List)으로 추대됐다.

다음 개최국인 한국의 참가회원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한국 홍보부는 90년 FDI개회국 싱가포르부스의 옆에 있으나 인기면에서는 한국부스가 싱가포르부스를 단연 압도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간 1차 안내문, 스티카, 전사안내문, 부채등 홍보물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1월30일 駐 인도 한국대사관에서 김대지대사와 강효식아태준비위원장이 주최한 공식리셉션 「한국의밤」행사는 한국대표단을 비롯 각국의 正·副대표, 아태연맹 및 FDI의 간부, 전시 참가업체대표, 대사관직원등 2백여명이 참가, 대성황을 이뤘다.

姜준비위원장은 이날 파티의 분위기를 89년 서울대회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험조적이었다고 전하고 이날 파티가 제 3세계 국가들과의 민간교류면에서도 격찬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했다.



〈한국의 밤을 주관하면서 姜孝植준비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총회를 마치고 회회기(旗)와 사인부를 印度준비위원장에서부터 받아들고 기뻐하는 姜위원장〉



〈회의장 입구에서 참가회원 내외분이 홍보물인 태극선을 들고 기념촬영〉

“다릅시다”

東明 Gold Casting Alloy · 東明 Amalgam Alloy · 東明 Porcelain Alloy

東 明 合 金

275-4414, 1243 · 277-2875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세한B/D 708호)